

# '정보화사회 불교화' 원 세우자

### 교수불자련 10주년 세미나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 참선 방법론 다양하게 개발해야 불교환경학 정립 환경문제 해결

제1발제 '21세기 한국불교와 정보화'에서 이동한 교수(충북대)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한국불교의 과제는 정보화 사회를 불교화하는 원(願)을 세워 불교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에 관련된 정보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리의 정보화에 아이디어를 내며 불교사적의 저술 활동을 통해 불교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교수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성과 개별성,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정보의 속성 때문에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은 속명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불교에 관련된 정보매체를 올바르게 구성함으로써 선과 진정한 자아와 세계를 통찰하고 현상의 본질적 요소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의 불교와 환경문제'로 제2발제에 나선 이병인 교수(밀양대)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불교의 구체적 발전을 위한 학제간의 연구학문으로서 '불교환경학'

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무소유적인 삶, 모든 만물의 본질적 가치와 존재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화엄사상과 윤회사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윤리와 행동규범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교수는 "불교를 제외한 기존 종교 및 철학에 있어 윤리 도덕의 주체와 행위의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었다"며 "여기서 비롯되는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발제에서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21세기 불교와 경제문제'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하는 보살의 경제윤

리를 지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박교수는 "우리는 현재 경제문제에 임시방편적이고 대중요법적인 처방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마허가 말한대로 '영혼과 양심, 그리고 도덕적 목표' 등에 대해 기탄없이 토의할 수 있는 차원높은 경제학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바른 경제생활'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명(正命)사상(正命)사상보다는 환경과 분배에 맞춘 경제정책(大대량생산체제에서 중간 기술에 의한 생산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을 제시)하고, "보살경제 또는 인간적 경제 이념을 담고 있는 불교경제이념을 통해 차가운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극복되고 따뜻한 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 한국교수불자련 10년
- 1988년 2월 27일, 창립
  - 1989년 1월 인도 성지순례
  - 1990년 7월 제1회 한·일 불교 학술대회
  - 1997년 9월 한·독 국제학술 회의
  - 1988~1998년 춘·추계 학술세미나, 수련회 개최

### 동국대-日 대정대 '문학에 드러난 불교' 학술교류회의 열렸다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의 제 11회 학술교류회의가 '문학에 드러난 불교'를 주제로 15일 일본 대정대학에서 열렸다.

'선시(禪詩)의 세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법산스님(불교대학장)은 "선시는 깨달음의 경계에서 견문각지(見聞覺知)의 직감으로 자아를 탐구하여 돈오자성(頓悟自性)의 계기를 갖도록 표현돼 있다"며 "선시는 문자적 시구(詩句)를 빌렸을 뿐 공안(公案)이나 다름 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망상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고전문학의 불교코드'에서 임기중 교수(국문과)는 "불교문화 코드는 우리의 서문학에 중요한 구성원리와 깨우침의 교훈요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 현대불교문학의 현황과 전개'에서 홍기삼 교수(국문과)는 "현실초월이라는 불교문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길은 불교문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할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말레이시아 불교협회

### 480여 불교단체 활동상황 '상세히' 웨삭데이 공휴일 지정노력등 담아

이슬람교도 45%·불교도 35%·힌두교 10%. 이같은 종교인구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류 종교로 우뚝 선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자국의 비정부 불교기구 480여개 단체를 아우르는 '말레이시아 불교협회(Malaysian Buddhist Association)' 사이트가 바로 그것.

불교협회는 말레이시아 불자들의 의의증진과 상호간의 일치단결을 촉진한다. 불교의 계를 준수, 불교 홍보, 사회봉사 사업 증진, 도덕성 향상, 종교적 화합 등의 목적으로 1959년 4월 19일 창립했다. 현재 이곳에는 말레이시아의 사찰과 각종 불교관련 협회들의 단체를 포함, 485개 기관·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회원의 수도 2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불교협회 산하에는 전국적으로 27곳의 지부와 지소가 결성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불교연구소(Malaysian Buddhist Institute)를 비롯 10여개 불부속연구기관으로는 설치해 놓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불교협회가 말레이시아 국민과 불교도들의 권리와 권익옹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을 소개받을 수 있다. 불교협회가 전개하는 운동에는 '말레이시아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데이(Wesak Day)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투쟁, 불교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모든 불교관련 영화제작을 미연에 막기 위한 국가 영화검열 위원회와의 공조, 불교사찰건축에 대한 관리권 획득,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패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후다드 법(Hudud Laws)이라는 종교 관련

법 시행 반대 운동,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여타 종교들과의 다양한 관계 설정 및 상호간의 권리보호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불교협회는 △포교·교육·자선 △불교청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부속기관들을 신설해 놓았다. '포교'분야에서는 불교협회의 주요 목표를 준수하고,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 마을 단위는 일, 불교도들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의 자료실에서는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순회법회와 각 스님들의 인물사진 및 법문을 열람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불교 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자선' 분야에서는 신장병 환자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신장보호협회(Renal Care Association)와 협조하여 신장병에 필요한 신장투석(透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교협회의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빈곤층으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가난한 가족이나 개인이 사망하여 장례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 관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례비 일체를 지불해 주기도 하며, 응급환자를 위한 헌혈운동도 한다.

'불교청년' 분야는 1986년 불교협회의 전국 대표자회의의 협조에서 마련돼, 말레이시아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세부 교육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가져오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www.jaring.mt/mba/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 "한국의 사리탑양식 日에 영향"

### 성철선사상연구 '선불교와 사리탑' 학술회의

### "성철대선사 사리탑 파격적 장식 생략"

"한국의 사리탑은 석조부도로서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전형적 양식을 보이며 독창적으로 발전해 일본 사리탑에 영향을 미치고, 콘스님의 깨달음과 수행정신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성철스님 열반 5주기를 맞아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가 23일 대한문화원 대강당에서 '선(禪)불교와 사리탑'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학술회의에서 '사리신앙(舍利信仰)의 종교성'으로 기초발제에 나선 목정배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독특한 신앙 가운데 하나인 사리신앙은 물력(物力)이 아닌 심력(心力)의 빛을 신앙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깨침을 자기화하여는 영인의 신앙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발제에 나선 장홍식 교수(동국대 불교미술)는 '구산선문과 사리탑'에서 "구산선문의 개산조 또는 개창자 부도의 기본 형식은 다보탑의

탄신부에서부터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팔각원당형부도(八角圓堂形浮屠)로 알려진 이 형식은 불국사 다보탑에 나타난 방주(方柱)의 기단 위에 올려놓은 탑신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9세기 이후 선종 미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영호 교수(한국고원대)는 제2발제 '한·중·일의 부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부도는 각각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건조재료"라며 "중국을 전조(塲造) 부도, 모전석조 부도, 석조 부도 등 다채로운 재료의 부도라고 할 때 한국은 석조 부도로 일관하였으며, 일본은 목조 부도의 나라"라고 밝혔다.

제3발제 '성철 대선사와 그 사리탑'에서 홍운식 교수는 "원과 반구, 구로된 구조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적 표출양식에 적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철 대선사의 사리탑은 종래의 재래적 사리탑에 비하여 장식적인 면에서 파격적인 생략을 도모했다"며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자유자재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철스님의 전인적 인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년 일고 있니 달마야 선(禪)수행은 자신을 버려야 하는 어려운 길이다. (고양이 달마는 참선하는 보디를 지켜본다)

아 그래, 미량(暹羅)이 사리탑이 시작했어.

이러다가 이 사찰에서 제일 진척이 큰 수행승이 되었어. (보디의 말을 듣는 순간, 고양이는 자지러지듯이 넘어진다)

해설 온갖 경계는 마음이 그릇되게 움직여 일으켜 놓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그릇되게 움직이는 것을 제거하면 온갖 경계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심이 두루 아니 미침이 없게 된다.

##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 황토 토굴 ① 3평형 ②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

□ 일시 : 불기 2542년 11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 (부산교육대학 앞)  
□ 행사명 :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  
□ 초청법사 :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주지)  
□ 주최 : 성원그룹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T. (051) 816-3680

귀의 삼보하옵고 그동안 성원그룹의 정상화를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그룹은 불자님의 성원과 부처님의 원력으로 법원에 제출한 화의 및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시판정이 11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의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의 원력으로 화의 및 법정판리가 성취되어 성원그룹이 재발심하여 국가발전과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0월 좋은날  
성원그룹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본부장 혜총 합장

\* 동참하신 불자 전원에게 법구경 메모 4개 세트(4개종) 증정합니다. \*

## 靑潭大宗師 27週忌 追慕 大法會 案内

「청담 대종사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 2542년 11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 (02)993-5002  
종무소 ☎ (02)993-3161 ~ 3  
F A X ☎ (02)993-3164  
불기 2542년 11월 2일

大韓佛敎曹溪宗 三角山 道說寺  
護國懷悔祈禱道場

도선사 주지 차 동 광 합 장  
청담 문도회 일 동 합 장